

< 보라, 하나님은 >

이사야 12:2,3 / 새찬송가 550 (통일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시62:6,7).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요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욘2:8,9).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고백했습니다(단3:28).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셨습니다. 바울도 공회에서 심문을 받으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쟁으로 찢겨질 위험을 간신히 넘긴 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 합니다(행23:11).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은 새해에도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2.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힘은 크고 위대한 힘이나 권력이나 돈, 지식의 힘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사40:30,31). 이 새 힘은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새해에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새찬송가 301장2절).

또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시는데 이는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노래는 고난의 밤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욥35:10), (시77:5,6).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행16:25). 이 기쁨은 잠시잠간 지속되는 세상의 기쁨과 달리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본질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새해에도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십니다.

3.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새 힘과 참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됩니다(요7:37), (새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사55:1), (요4:13,14), (계22:1,2).